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전무용*

1. 머리말

그동안 간간이 성경의 독자들로부터 한글 성경의 관주에 대한 문의가 대한성서공회로 들어왔다. 주로 누가 만든 것이며 언제 만든 것인가 하는 문의와, 관주의 내용에 대한 문의였다. 한글 관주는 「영어 개역 관주 성경」(옥스퍼드대학교와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을 바탕으로 하여 번역하여 만든 것이고, 1926년에 성경 전체에 대한 관주가 「선한문관주성경전서」(이하 ‘선한문’으로)로 출간이 되었다.¹⁾ 이 책은 1912년에 나온 유성준 이익채의 「신약전서 관주」에 정태용 조용규가 번역한 「선한문관주구약전서」를 합한 것이다.²⁾ 이 관주 체계가 1930년 구역 「관주성경전서」(이하 ‘구역’으로)의 관주로, 현재 쓰고 있는 1962년의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이하 ‘한글판’으로)의 관주로³⁾, 1964년의 「관주성경전서간이국한문한글판」(이하 ‘국한문판’으로)의 관주로 그대로 이어졌다. 다만 1964년 「관주성경전서간이국한문한글판」의 관주는 내용은 같지만, 관주 기호를 붙이는 자리가 1962년판과 달라졌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검토가 될 것이다.

이번에 「개역개정판」(이하 「개정판」으로) 성경이 나오면서, 독자들로부터 「개정판」에 관주를 붙여서 출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대한성서공회로 많이 들어왔고, 이러한 기회에 그동안 간간이 확인하고 검토했던 우리말 성경의 관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개역한글판

* 대한성서공회 개정업무과 과장

1) 「대한성서공회사Ⅱ」, 1994, 89-90쪽 참조. 이는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이지만, 필자는 아직 바탕 본문인 「영어개역 관주」 성경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2) 「대한성서공회사Ⅱ」, 204 쪽 참조

3) 1940년에 「관주 신약 개역」이 나오지만, 「개역」의 관주는 성경전서로 나오지 못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1950년대 중반 이후까지 계속해서 관주가 있는 「구역」이 읽힌다 62년이 되어서야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이 나온다.

」에 있는 관주들을 「개역개정판」에 올바르게 옮기기 위해서, 또 「개역한글판」 관주의 오류들을 확인해서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들이 반영된 새로운 관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동안 발견된 「개역한글판」 관주의 오류들을 검토하고, 오류의 성격을 알아보려 한다. 다음으로, 1962년의 「한글판」의 관주의 관주 위치의 오류에 대하여 살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1962년 「한글판」의 관주와 1964년판 「국한문판」의 관주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검토들을 바탕으로, 「관주가 있는 개역개정판」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특히 「개정판」 성경의 관주 작업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작업 과정에 「관주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교정하는 방법을 찾아 보았다.

2. 관주의 내용이나 관주 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

2.1. 한글 성경의 약자가 달라진 것이 관주에 반영되지 못한 예

한글 성경의 약자가 구역의 약자와 개역의 약자가 다르다. 이 차이가 대부분 관주에 반영이 되었는데, 「아가」의 관주가 구역대로 「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었다. 다음 두 곳은 우연히 발견된 곳이다. 찾아 보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모두 「아」로 바뀌어 있었다. 이 두 곳은 구역의 약자를 개역한글판 약자로 바꾸면서 바뀌지 않은 곳이다. 이 두 곳은 개역한글판(62년)과 개역간이국한문(64년) 두 책에서 모두 잘못되어 있다. 확인된 대부분의 경우에, 62년판의 관주 오류는 모두 그대로 64년판의 관주 오류로 연결되어 있었다. 국한문 성경을 만들 때는 62년판을 기준으로 64년판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된다.

창3:16ㄷ 가7:10 → 아7:10 (「아가」의 오류)
계3:20ㄴ 비, 가5:2 → 비, 아5:2 (「아가」의 오류)

2.2. 기타 관주 오류

2.2.1. 레5:3 ㅎ 보, 레 12:, 10 3:, 15:

레5:3 [3]^ㅎ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

떠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앞에 ‘ㅎ’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절 전체에 대한 관주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 절이 사람의 ‘부정’과 ‘허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글판」의 관주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레위기 12장과 15장은 ‘부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장이어서 이 절에 대한 관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10 3’이 알 수 없는 관주인데, 「미국성서공회판성경」⁴⁾(이하 ‘ABS판’으로)의 관주를 보면 이것이 레12장, 13장, 15장에 대한 관주임을 알 수 있다. 이곳들은 ‘부정’에 대하여 나오는 곳이다. 「구역」 관주를 보면 ‘十二, 十三, 十五,’로 되어 있다. 교정 과정에 이것을 잘못 읽어서 ‘十三,’을 ‘10 3,’으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26년판 「선한문관주」와 「구역」은 ‘보, 레 十二.; 十三.; 十五.’로 바로 되어 있다.

2.2.2. 삼상16:7 으 시47:10,11

삼상16:7 [7]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편 47편은 9절까지밖에 없다. ABS판 영어성경 관주와 「일본어 성경」 관주⁵⁾와 26년판 「선한문」과 「구역」의 관주들로부터 이곳이 ‘시147:10,11’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舊新約聖經 文理串珠」(1912)⁶⁾는 144:10,11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 본문 내용을 살펴 볼 때에 147:10,11의 오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147:10,11 [10]여호와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11]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다

시144:10,11 [10]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11]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꾀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4) The HOLY BIBLE, NEW YORK, CB086X Series, A.B.S., 1960, 본문은 흠정역이며, 관주가 붙어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우리 관주의 저본이었다고 보고되어 있는 「영어개역 관주 성경」을 구하지 못해서, 다른 여러 관주 성경을 참고하고 있다.

5) 「聖書(引照つき)」, 일본성서협회, 1955년 개역, 이하 「일본어 성경」으로

6) 「舊新約聖經 文理串珠」, 1912년, 상해대미국성경회, 본문으로 보아 문리본(연합본), 특히 EASY WENLI 라고 하는 문리역이다. (이하 ‘연합본 문리’로)

「舊新約聖經 文理串珠」(1920)⁷⁾에는 147:10,11로 바로 되어 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지’가 서로 호응하는 관주로 생각된다.

2.2.3. 삼하14:7 ㄱ 비, 전 45:7

[7] 내 남편의 이름과 ^ㅅ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전도서는 45장이 없다. 그러므로 개역의 관주는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45:7절이 있는 모든 곳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창45:7 [7]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시45:7 [7]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사45:7 [7]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겔45:7 [7]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찌니라

이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 일단 다른 곳들은 삼하14:7과 관계가 없고, 창45:7의 ‘당신들의 후손’이 ‘씨’에 상응하는 구절임을 확인할 수 있다. 26년판 「선한문」과 「구역」은 ‘창45:7’로 되어 있다. 「연합본문리관주」와 「위원회본문리관주」에도 ‘창45:7’가 나와 있다.

2.2.4. 겔 18:7 ㄷ 비, 막 25:35,36

7) 「新舊約聖經 文理串珠」,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Shanghai, 1920(Ed1804), Wenli Reference,(Delegates Version) 이 책이 ‘High Wenli’ 또는 ‘Classic Wenli’ 라고 하는 위원회본에 관주가 붙은 것이다. 이 성경의 관주는 미국성서공회판 관주와 내용과 체제가 다르고, 우리 관주와도 다르다. (이하 ‘위원회본 문리관주’로)

겔18:7 [7]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빛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ㄱ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신약 마가복음은 25장이 없다. ‘막’을 ‘미가’나 ‘마태’의 오기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미가도 25장이 없다. 마태 25장 35-36을 살펴 보면

[35]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6]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내용으로 서로 상응하는 구절이다. 「구역」은 「개역한글판」 관주와 같이 잘못되어 있고, 26년판 「선한문」 관주는 ‘마 25:35,36’으로 바로 되어 있다. 「연합본문리관주」에도 ‘마25:35,36’이 있다.

2.2.5. 눅2:11 ^ㅎ 보, 마 1:70

눅2:11 [11]오늘날 ^ㄱ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ㄴ구주가 ^ㄷ나셨으니 곧 ^ㄹ그리스도 ^ㅁ주시니라

마태복음은 1장에 70절이 없다. 그러므로, 이 곳 ‘ㅎ’의 관주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BS판 관주에는 ‘마1:16; 16:16’이라는 관주가 있다. 콜린사판⁸⁾에는 이 부분에 관주가 없고, 「일본어 성경」 관주⁹⁾는 이 자리에 마1:16, 16:16; 요1:41; 11:27; 행2:36; 10:36 등의 많은 관주가 있다. 1921년판 「연합본문리관주」에는 마 1:26의 관주가 보이는데, 마태복음 1장은 25절이 끝이므로, 이 관주도 혹 1:16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자 숫자의 관주기호로 쓴 약자에서 16과 26은 세로 줄 하나 더 있고 없는 차이여서 글자 모양이 아주 유사하다.) 「위원회역본 문리관주」에는 ‘마1:16; 16:16’이라는 관주가 있다. 여러 관주 성경을 살펴 보아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마1:17의 관주는 보이지 않고 16절을 관주로 올린 관주들은 ABS판 관주와 일어 개역 성경 관주와 한문성경 관주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8) THE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1967, London And New York, Collins' Clear-Type Press.

9) 「聖書(引照つき)」, 일본성서협회, 1955년 개역,

에서 마태 1장 16절과 17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곳의 관주로 '마1:16'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1:16-17 [16]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러라

누가복음의 '곧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본문 내용과 이곳 마태복음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서로 관련을 지어 찾아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곳의 관주는 '마1:16'이 적합하고, 「개역」의 1:70이나, 「구역」과 26년 「선한문」판의 '마1:17'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역」의 관주는 「구역」과 26년 「선한문」판의 관주 '마一:十七'을 '마一:七十'으로 잘못 교정한 것으로 보이고, 26년판의 관주에 17절로 된 것은, 17절에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내용상 16절이 더 가깝게 상응된다. 당시의 관주 작업자들이 17절의 '그리스도'를 보고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약간 먼 길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6년판 관주의 판단을 따른다면 '마1:17'로, 좀 더 근본적으로 고친다면 '마1:16'으로 고쳐야 하는 자리이다. 우리 관주의 바탕인 영어 개역의 관주는 어떠한지 궁금한 부분이다.

2.2.6. 고후3:14 ㄱ 보, 마6:52

[14] 그러나 저희 마음이 ㄱ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전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마태복음에는 6장이 34절까지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역한글판」의 이 관주는 잘못된 것이다. 「구역」의 관주도 '마6:52'로 똑같이 잘못되어 있고, 26년 「선한문」판 관주와 「연합본문리역」의 관주는 '보, 막6:52'로 되어 있다. 「개역한글판」의 관주가 「구역」의 관주의 교정 오류를 답습한 것으로 미루어, 구역의 관주를 보고 개역의 관주 작업을 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막6:52 [52]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

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서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관주 ‘^ㄱ’ ‘완고하여’와 막6:52의 ‘심히 놀라니’가 서로 상응하는 구절이다. NRSV는 이 두 곳을 모두 ‘hardened’로, 같은 말로 번역하였다.

2.2.7. 골2:7 ^ㄱ 엡20:32, 엡 2:20

[7]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ㄱ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으니, ‘엡 20:32’는 잘못된 관주임을 알 수 있다. ABS판에는 이 곳에 엡3:17이라는 관주가 있으나, 이는 개역의 관주와는 관련이 없고, 「연합본문리관주」에는 ‘행20:32; 엡2:20’이라는 관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 본문과 두 관주는 ‘세움을 입다’는 내용으로 서로 상응하여 관련되는 내용이다.

행20:32 [32]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 업이 있게 하시리라

엡2:20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선한문」판과 「구역」 관주에는 ‘행 20:32; 엡 2:20’로 바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이 곳은 ‘행20:32; 엡2:20’으로 되어야 할 곳이다.

2.2.8. 골4:16 ^ㄱ 딤후5:27

[16] ^ㄱ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디모데전서 5장은 25절이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이 곳의 딤후5:27은 잘못된 것이다. 「구역」과 「연합본문리관주」는 ‘살전 5:27’로 되어 있다.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의 내용과는 ‘편지를 읽으라’는 내용으로 서로 연관이 된다.

살전5:27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2.2.9. 히2:9 T 미16:28; 요8:52

히2:9 [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T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미가서는 7장까지밖에 없다. 이곳의 '미16:28'은 오류이다. 26년판 「선한문」 관주와 ABS판 관주에서는 '마16:28; 요8:52'로 되어 있다. '죽음을 맛보다'의 '죽음'과 마16:28 '죽기 전에'의 '죽음'과 요8:52의 '죽음을 맛보다'의 '죽음'을 함께 관련지어서 살펴보라는 내용의 관주로 이해할 수 있다.

마16:28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요8:52 [52]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2.2.10. 계22:17 K 계21:6 사55:1, 7:37

계22:17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K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곳의 관주에서는 7:37이 어떤 책을 나타내는 관주인지 알 수가 없다. 언뜻 이사야서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7:37이 55:1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 26년판은 '요7:37'로 되어 있다. 다음의 관주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보면, '목마르다'와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지어 보라고 하는 내용의 관주임을 알 수 있고, 구역의 관주가 바른 것임을 알 수 있다. 흥미 있는 것은 이 관주 요7:37이 영국에서 나온 '컬린사'의 관주에만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의 문리관주나 ABS판 관주나 「일본어 성경」¹⁰⁾ 관주 등에는 보이지 않는다. 영어 개역 관주에 이 부분이 있는

지 궁금하다.

요7:37 [37]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21:6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55:1 [1]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3. 본문 속 관주 기호의 위치의 변화

26년판 「선한문」 또는 「구역」과 현재의 「개역한글판」의 관주를 비교해 보면
서, 관주가 붙는 위치가 달라진 곳이 있음을 알았다. 두 번역 사이에 본문의 차
이가 없는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이 이전 「선한문」과 「구역」의 관주가 개역의
관주로 옮겨졌다. 그러나 본문의 번역문이 달라진 경우에, 그 위치가 문맥에 맞
게 바르게 달라진 곳도 있지만, 기계적으로 작업하여, 관주가 엉뚱한 곳에 붙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한 본문 안에서 번역문이 상반절과 하반절
의 어순이 바뀐다든지 할 때에, 각각의 자리에 관주가 있었다면, 번역문의 변화
를 따라서 관주가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다.

2.3.1. 관주의 위치가 문맥에 맞게 바르게 달라진 곳

(1) 개역한글판 마태복음 2장 1절

[1]^ㄴ 헤롯 왕 때에 ^ㄴ 예수께서 유대 ^ㄴ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ㄴ 동방으로부
터 ^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ㄴ : 비, 창 25:6 왕상4:30

ㄴ : 렘39:3

선한문 마 2:1 ^ㄴ 헤롯王 時에 ^ㄴ 예수께서 유대 ^ㄴ 벳을네헴에 誕生하시니 ^ㄴ

10) 「聖書(引照つき)」, 일본성서협회 1955년 개역

博士等 이 卍 東方으로브터 至호야 言호디

트 : 렘39:3

표 : 비, 창 25:6 왕상4:30

여기서는 보는 대로, 트과 표의 어순이 바뀌면서 관주도 정확하게 기호가 앞뒤로 바뀌어서 표기가 되었다.

(2) 개역한글판 마태복음 3장 3절

[3]광야에 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선한문 마3:3 曠野에 ㄴ 聲이 有호야 呼호야 曰 ㄴ 主의 路를 豫備호며 其捷徑을 直케 호라

여기서는 관주의 기호 ‘ㄴ’가 붙는 자리가 달라졌는데, 이는 본문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로 그 위치를 조정한 것이다. 관주가 붙는 자리가 이사야서 40:3의 본문을 인용한 것을 나타내는 관주인데, 개역의 이사야서의 번역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로 되어 있어서, 관주의 자리를 기계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옮겼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기계적으로 옮겼다면 ‘聲’의 자리에 있는 관주를 ‘소리’의 자리로 옮겼을 것이다.

2.3.2. 신약에서 관주 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

(1) 마태복음 3장 7절

한글판 마3:7 누가 너희를 가르쳐 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선한문 마3:7 誰가 爾等を敎호야 將來의 ㄴ 怒호 심을 避호라 호더냐

연합본문리 誰示爾避將 ㄴ 來之怒乎

위원회본 誰示爾避後日之 ㄴ 刑乎

개역관주 ㄴ : 롬5:9 엡5:6 골3:6 살전1:10

연합본관주 : 롬5:9 살전1:10

위원회본 관주 : 롬5:9 살전1:10

이곳의 관주는 26년 「선한문」 판과 「구역」은 같고 개역에 와서 달라졌다 「국

한문판」은 「한글판」과 같다.

롬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엡5: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
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골3:6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살전1: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
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시니라

이들 네 곳에서 보면 「개역한글판」처럼 “임박한 진노”로 수정이 되기가 곤란하다. 다만 살전1:10에서만 보면 “장래 노하심”이라는 구절이 보이지만, 다른 관주들은 내용상 ‘하나님의 노하심’이다. 따라서 이곳의 변화는 오교정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데, 문리역을 보면 ‘來之怒(다쳐올 노여움)’로 현재의 개역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구역에서 개역으로 오면서 기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혹 다른 관주를 보면서 검토를 하여 고쳤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러한 유사한 예를 볼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이러한 가능성은 적다. 이 단계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관주의 위치를 조직적으로 바꾼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글 관주의 특성상 하반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전체에 대한 관주로 위치를 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마태복음 3장 11절

마3:11 ^ㄴ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ㄹ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마3:11 ^ㄴ我는 水로 洗禮를 施 ^ㅎ야 爾等으로 ^ㄹ悔改케 ^ㅎ거니와

ㄴ : 요1:26 행1:5

ㄹ : 행13:24 행19:4

ㄴ : 요1: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행1: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ㄹ : 행13:24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에게 전파하니라

행19:4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곳 마3:11 상반절에서는 번역의 내용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관주는 순서가 달라지지 않아서 거꾸로 되었다. 개역의 관주 ‘日’은 두 곳 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내용이어서 ‘人’ 기호가 있는 “물로 세례를” 자리의 관주 내용이고, ‘人’은 본문의 내용이 둘 다 ‘회개의 세례’와 관계된 내용이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의 본문에 붙은 기호 ‘日’에 대한 관주이다.

이러한 오류는 관주를 구역에서 개역으로 옮기면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순이나 내용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주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여서, 결과적으로 개역한글판의 관주가 틀리게 뒤바뀌었다. 이곳의 오류는 국한문판의 관주 위치에도 그대로 잘못된 대로 이어져 있다.

(3) 마태복음 5장 43절 관주

[43] 또 ㄴ 네 이웃을 사랑하고 ㄴ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ㄴ 너희가 들었으나

관주 ㄴ : 보, 21

이 관주는 ‘21절을 보라’는 말이다.

[21] 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곳 21절의 관주 人은 ‘비, 27, 31, 38, 43’이라는 관주 내용이 있어서, ‘43절과 비교해 보라’는 뜻을 띠고 있다. 내용을 살펴 보면 43절의 관주 人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에 해당하는 관주가 아니라 절 전체의 내용과 관련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1, 27, 31, 38, 43절 모두가 ‘옛사람에게 말한바-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는 형식의 어법으로 말하는 구절이다. 이러한 특징을 비교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주 ‘人’의 관주 내용으로 ‘보, 21’이 붙어야 적합하다.

관주 ‘ㄱ’:

레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19:[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43절의 관주 ‘ㄱ’는 실제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에 붙어야 할 관주이다. 그 래야 레19:18의 내용에 잘 어울린다. 또 같은 곳에 있는 관주 ‘보, 마19:19’를 따 라가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 교정 과정에 ‘ㄱ’의 위치 가 뒤로 밀려서 잘못 붙은 것이다.

43절의 관주 ‘ㄱ’는 ‘비, 신23:6’인데, 이는 신명기 23장 6절과 비교하여 보라 는 지시이다.

신23: [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 하리라 [4]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 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 시므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 니 [6]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찌니라

본문을 찾아보면 암몬 사람에게 대하여 복을 빌지 말라는 본문이다. 이 관주 는 내용상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본문과 대응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관주 기호의 위치가 이 내용을 가리킬 수 있는 자리에 붙어야 할 내용이다. 이 관주도 역시 뒤로 약간 밀려서 잘못 붙은 것이다.

26년판과 구역의 본문과 거기에 붙은 관주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번역 과정 에 본문의 내용이 앞뒤로 바뀌면서 일어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선한문관주」: [43][†] 또 ㅎ 신 言을 爾等이 聞ㅎ엿스니 [†] 爾의 隣을 愛ㅎ 고 [†] 爾의 讐를 惡ㅎ라 ㅎ엿스나

한글 관주의 뿌리인 이 본문의 관주는 정확하게 제 자리에 관주가 붙어 있다. 관주 기호와 그 기호의 관주 내용이 잘 호응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다음의 구역에 서도 제대로 되어 있다.

「구역」: 43^ㅅ 또 ㅎ 신 말슴을 너희가 드렛느니 ㅅ네 리웃을 스랑ㅎ고 ㅅ네 원수를 뉘워ㅎ라 ㅎ엿스나

이러한 관주가 개역으로 오면서, 본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관주를 기계적으로 옮기면서 오류가 일어났다. 구역에서 개역으로 번역이 바뀌면서, 번역 본문의 어순이 바뀌었는데도 관주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순서대로 옮겼기 때문에 일어난 오류이다. 이곳의 오류도 국한문판에 그대로 이어져 있다. 이 관주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올바르다.

[43] 또 ㅅ네 이웃을 사랑하고 ㅅ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ㅅ너희가 들었으나

ㅅ : 레19:18 마19:19

ㅅ : 비, 신23:6

ㅅ : 보, 21

(4) 마태복음 6장 18절

「개역한글판」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ㅅ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선한문」 [18] 此는 禁食ㅎ는 것을 他人의게 示ㅎ려고 ㅎ이 아니오 다만 隱密ㅎ 中에 在ㅎ신 爾父의 示ㅎ이니 ㅅ隱密ㅎ 中에 鑒ㅎ시는 爾父가 報ㅎ시리라

ㅅ: 4, 6

이 곳의 관주는 4절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와 짝을 이루는 내용임을 알려 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개역한글판」의 관주는 잘못 붙은 것이고, 「선한문」 관주 기호와 같이 두 번째 나오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에 관주가 붙어야 할 자리이다. 관주를 옮기면서 비슷한 본문에 같은 낱말이 나오는 자리에서, 작업자가 잘못 보아서, 다른 자리에 관주 기호를 붙인 것 같다. 바로잡아야 한다.

(5) 마태복음 6장 30절

「개역한글판」 [30]^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선한문」 [30]^이 少信者들아 今日에 在 ㅎ다가 來日 아궁에 投 ㅎ는 野草도 하느님이 如此히 ㅅ히시거든 況 爾等이야 더욱 ㅅ히지 아니하시라

이 : 마8:26; 14:31; 16:8; 비, 마17:20

마8:26 [26]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14:31 [31]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16:8 [8]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마17:20 [20]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곳의 관주 ‘이’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에 대한 관주이다. 그런데 번역이 개역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절의 끝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개역한글판의 관주가 이동하여야 하는데, 개역한글판의 관주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내용의 변화에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다.

(6) 마태복음 8장 26절

「개역한글판」 [26]예수께서 이르시되 ㄱ어찌하여 ㄴ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ㄷ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ㄹ잔잔하게 되거늘

「선한문」 [26] 예수 ㅣ 謂 ㅎ샤디 ㄱ 少信者여 엇지 ㄴ 懼 ㅎ는냐 ㅎ시고 卽起 ㅎ샤 ㄷ 風과 海를叱 ㅎ 신디 아조 ㄹ 潺潺 ㅎ거늘

ㄱ : 보, 마6:30

ㄴ : 요14:27

ㄷ : 시104:6,7; 비, 눅4:39

ㄹ : 욥38:11; 시65:7; 비, 마14:32;

이 곳의 관주 가운데서 관주 ‘ㄱ’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역시 구역과 개역의 본문의 번역이 달라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뒤로 위치가 이동하였는데, 관주를 따라서 그 자리로 옮기지 않고, 원래의 순서대로 두어서, 잘못 된 것이다. 이는 개역의 관주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관주의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작업한 것일 수도 있다. 마태복음 6장 30 절은 “[30]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인데, 관주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로 병행이 되는 내용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관주 기호가 이동하고, 관주 내용도 앞뒤가 바뀌어야 한다.

[26]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ㄱ무서워하느냐 ㄴ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ㄷ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ㄹ잔잔하게 되거늘

ㄱ : 요14:27

ㄴ : 보, 마6:30

ㄷ : 시104:6,7; 비, 눅4:39

ㄹ : 욥38:11; 시65:7; 비, 마14:32;

(7) 마태복음 9장 36절

「개역한글판」 [36]^ㄱ무리를 보시고 ㄴ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ㄹ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선한문」 [36]^ㄱ群衆이 ㄴ牧者無_은 羊과 ㄷ치 苦生_은 하며 遊離_은 하는 것을 見_은 시고 ㄹ憫히 녀이사

ㄷ : 비, 마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ㄴ : 민27:17 [17]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와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왕상22:17 [17]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

이 산에 흠어졌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겔34:5 [5]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흠어지고 흠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다

ㄷ : 막6:34 [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곳도 본문의 번역이 어순이 달라졌는데, 관주의 순서는 본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선한문 성경에서 ㄷ은, 마태복음 14장 14절과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었다'는 내용으로 병행이 됨을 안내해 주는 관주이다. 그러므로 'ㄷ'은 36절 전체와 관련이 있는 관주로, 이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 바른 것이다.

관주 'ㄷ'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내용으로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려 주는 관주이다.

관주 'ㄷ'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내용까지 포 함된 내용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곳의 관주 'ㄷ'과 'ㄷ'은 서로 바꾸어서 관주를 붙여야 한다. 26년 판 「선한문」의 관주는 제대로 된 것인데 비해, 번역이 달라진 「개역한글판」은 어순의 변화를 따라 관주의 내용도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8) 신약 마태복음을 1장부터 10장까지만 표본으로 대조하여 검토를 한 결과 7곳의 관주가 본문 내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본문 내용에 변화가 온 곳에 있는 관주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서, 26년 「선한문」 판과 「구역」의 관주를 「개역한글판」으로 옮기면서,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내용을 모르는 작업자가 기계적으로 관주를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비율로 문제가 있다면, 신약 전체 260장 가운데서 180여곳 정도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단순 계산을 할 수 있다.

2.3.3. 구약에서 관주 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

(1) 창세기1장7절 관주 ㄷ

한글판 [7]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ㄷ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국한문판 [7]하나님이穹蒼을 만드사穹蒼 아래의 물과穹蒼^ㄱ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선한문:하느님이穹蒼을造^ㅎ샤^ㄱ其上下水를^ㄱ分^ㅎ하시니

관주 내용 시 148:4 : [4]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찌어다

관주의 내용인 시편 148편을 볼 때, 이 곳은 국한문 성경처럼 관주가 붙어야 할 자리이고, 한글판의 관주가 부정확한 것이다. 오히려 ‘하늘 위의 물’과 호응을 이루는 관주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전체에 관주를 붙일 수도 있겠고, 좀더 구체적으로 관주를 붙인다면 뒤쪽에 “궁창 위의 물”에 관주를 붙일 수도 있겠다.

(2)시편1편-10 편

구약에서 시편을 표본으로 삼아 1편부터 11편까지 「선한문」의 관주와 「한글판」의 관주를 대조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 곳들에서는 본문의 어순이 마태복음의 경우와 같이 바뀐 곳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관주의 내용이 그 변화에 맞게 정확하게 바뀌어서 제대로 되어 있었다.

시편 2편 1절에서 ‘^ㄱ’와 ‘^ㄴ’가 그러하고, 5편 12절의 ‘^이’와 ‘^ㅁ’, 7편 10절의 ‘^ㅈ’과 ‘^ㅊ’, 이러한 곳들이 본문의 어순이 바뀐 대로, 그 변화에 맞게 관주의 순서와 내용이 조정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마태복음을 검토해 본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시편 1-11편에서도 약간의 관주의 오류는 발견이 되었다.

3편 2절의 ‘^ㄱ’는 두 어절 더 앞으로 올라가서 붙어야 정확하다.

「한글판」3:2 [2]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ㄱ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ㄱ’ 삼하18:31-32 [31]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32]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

기를 원하나이다.

「선한문」3:2 彼가 救援함을 하느님께得치 못한다 ㅎ옵나이다(셀나)

사무엘하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묻는 곳인데, 구스 사람이 대답한 말이 시편 이곳의 본문과 상응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글판」의 관주는 「선한문」의 관주와 같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라는 내용이 관주가 되는 것이므로, ‘저는’ 앞에 관주가 붙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시편 3편 7절의 ‘ㄷ’은 지금과 같이 “나를 구원하소서”에 붙을 내용이 아니라 7절 처음의 “주여 일어나소서”에 붙어야 할 관주이다.

「한글판」 [7]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ㄷ나를 구원하소서
「선한문」 [7]여호와여 ㄷ紀 ㅎ옵쇼셔 我的 하느님이며 我를 救援 ㅎ옵쇼셔

관주 ‘ㄷ’: 시7:6; 시9:19; 시10:12; 민10:35

시7:6 [6]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시9:19 [19]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시10:12 [12]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며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민10:35 [35] 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위 네 곳의 관주에 모두 “주여 일어나소서”와 상응하는 구절이 있다. 「한글판」의 관주는 오류이다.

7편 5절의 ‘ㄱ’과 4절의 ‘ㄱ’은 나름대로 조정이 된 곳인데, ‘5’절에 있던 ‘ㄱ’가 4절로 간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선한문 : [4] 我的 親 者의게 惡으로 報 혔거든 [5] 怨讐가 我的 靈魂

을 追執 ्ह고 ۞ 我的 生命을 地에 賤 ्ह며 我的 榮華를 塵埃에 埋케 ्ह옵쇼셔
오직 ㄱ 無故히 怨讐된 자를 我가 拯 ्ह엿나이다(셀나)

‘으’ 단8:7 비, 시 89:39

‘ㄱ’ 삼상24:7; 26:9

한글판 : [4]화친한 자를 악으로 1) ㉠값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
았거든 [5]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ㄱ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
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ㄴ’ 삼상24:7 [7]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
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삼상26:9 [9]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ㄱ’ 단8:7 비, 시 89:39

「선한문」의 ‘으’ ‘단8:7 비, 시89:39’가 ‘ㄱ’으로 된 것은 본문의 변화를 따라 올
바로 된 것이다. 선한문에 있던 ‘ㄱ’ “無故히 怨讐된 자를 我가 拯 ्ह엿나이다 (셀
나)”는 번역이 달라지면서 4절 b로 옮겨간 본문을 따라서 앞으로 옮겼다. 그대
서 그 내용도 따라서 「한글판」의 ‘ㄴ’로 옮겨 간 것이다. 문제는 본문의 번역이
달라지면서 내용상의 상응 관계가 사라진 것이다. 구역의 번역에서는 본문의
내용이 ‘무고히 원수된 자를 내가 구하였다’는 것으로, 관주의 내용이 사무엘
상의 두 곳과 상응하였는데, 「한글판」의 번역은 이곳의 본문과 구역 때처럼 잘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무엘기의 두 곳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형편이 되었었는데, 죽이지 못하도록 하여 구하는 본문
이다. 이 곳은 본문 번역의 변화와 관주의 상관관계가 역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앞으로 「개역개정판」 이후에 관주를 재검토
하고 개정할 때에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3. 관주개역한글판과 관주개역간이국한문판의 관주 위치의 차이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3.1. 창세기 1장 1절 관주 ㄱ

(1) 관주의 위치

간이국한문 [1]太初에 하나님이 天地를 創造 하시니라

개역한글판 [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06판 이후의 관주개역한글판)

[1] 太初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04판 이전의 관주개역한글판, 86년 6월 25일)

26년선한문 창 1:1 太初에 하느님이 天地를 創造 하시니라

개역한글판관주 太초에

개역간이국한문관주 創造하시니라

콜린사판관주 ^a beginning ^b created미국성서공회판관주 ^a beginning

연합본문리성경관주 甲 太初 乙 創造

위원회역본문리관주 太初之 時

일본어성경관주 ^a 神 ^b 創造

(2) 관주의 내용

다음은 각 책에 실려 있는 관주의 내용이다. 창세기 1장 1절만 비교해 보았는데, 서로 완전히 같은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약간의 유사성은 있지만, 다 다르다.

개역한글판 콜린사	ABS판	연합본 문리관주	일본어	위원회역본 문리관주
욥 38:4-7 ^b 욥 38:4		甲 욥 38:4-7 乙 시 8:3	^a 시 8:3	
시 33:6		甲 시 33:6	^a 시 33:6 ^a 시 102:25	시 33:6
시 136:5	시 136:5		^a 사 40:21	
사 42:5		甲 사 42:5 乙 사 44:24	^a 사 42:5 ^a 사 44:24	사 42:5
사 45:18	^b 사 44:24	甲 사 45:18	^a 사 45:18	
요 1:1-3 ^a 요 1:1-3	요 1:1-3	甲 요 1:1 乙 행 14:15; 乙 행 17:24	^b 요 1:1	요 1:1-3 행 14:15
행 14:15 행 17:24				
	^b 롬 1:20	乙 롬 1:20	^a 롬 1:20	
골 1:16,17 ^b 골 1:16	골 1:16,17 히 1:8-10	乙 골 1:16	^a 골 1:16	골 1:16,17

히 1:10	^a 히 1:10,		^甲 히 1:10;	^b 히 1:10	히 1:10
히 11:3	^b 히 11:3	히 11:3	^甲 히 11:3(히 11:3)		^a 히 11:3
계 4:11	^b 계 4:11		^乙 계 4:11	^a 계 4:11	
같은 곳	6	4	10	7	
차이빈도	7곳	9곳	5곳	9곳	

(미국성서공회판:1960; 콜린사:1967; 일본어:1955; 개역한글판 연합본구신약 성경; 문리관주:1912; 위원회역본신구약성서 문리관주:1920.)

(3) 관련 관주와 그 본문

욥38:4-10 [4]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 [5]누가 그 도랑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6]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8]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9]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배풀고

시33:6 [6]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136:5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42:5 [5]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45:18 [18] 여호와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요1:1-3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행14:15 [15]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

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 오라 함이라

17:24 [24]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골1:16,17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1:10 [10]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3 [3]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계4:11 [11]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4) 개역 관주의 내용 검토

‘태초’의 개념이 있는 절은 이 가운데 히1:10, 요1:1-3 두 곳이고, 이 두 곳 모두 ‘창조’의 개념은 들어 있다. 콜린사에서 나온 영어관주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을 a b 둘로 나누어 a를 ‘태초에’에 붙이고, a의 자리에 이 히 1:10, 요 1:1-3 두 곳을 관주로 붙이고 있다. b는 ‘창조하다에 붙이고 위 두 곳을 제외한 6곳 욥38:4 사44:24 롬1:20 골1:16 히11:3 계4:11 등의 관주를 붙이고 있다. 이 관주 내용은 개역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ABS판 관주성경을 보니 ‘처음’의 자리에 관주 기호가 하나만 있고, 시 136:5 요1:1-3 골1:16,17 히1:8-10; 11:3 등의 관주가 있다.

「연합본문리관주」 성경의 관주는 ‘태초’의 관주로 욥38:4-7 시 33:6 사42:5; 45:18 요1:1 히1:10; 11:3 ‘창조’의 관주로 시 8:3 사44:24 행 14:15; 17:24 롬 1:20 골 1:16 히11:3 계4:11 등의 관주가 있다.

관주 내용으로 올라 있는 곳이 모두 18곳인데 그 가운데 개역한글판의 관주가 13곳이고, 「연합본문리역」이 개역과 같은 곳이 10곳으로 불과 세 곳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요한복음 1장 1절과 1-3절의 차이를 배제하면 11곳이 같고 두 곳이 다르다. 개역에는 있고 문리역에는 없거나 문리역에는 있고 개역에는 없거나 해서 다른 곳이 5곳이나 있어서, 관주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영어개역관주」를 아직 보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개역한글판」과 관주가 완전히 일치하는 성경을 보지 못했다. 1912년의 연합본문리성경과는 관주 내용이 상당히(위의 비교 중 가장) 유사하다. 문리 성경을 보면서 미국성서공회쪽 관주를 참고하면 한글 관주의 내용과 상당히 같아진다. 1절의 관주를 ‘ㄱ, ㄴ’으로 나누지 않고 ‘ㄱ’으로만 한 것은 미국성서공회쪽의 관주와 「위원회역본문리관주」 뿐이다. 영어개역 관주가 우리의 관주와 완전히 같은지, 비교해 보아야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여러 관주 성경을 함께 참조하면서 보면 개역의 관주의 오류는 바로잡을 수 있다.

26년판 「선한문」과 「구역」(1930)은 ‘태초’의 자리에만 관주가 하나 붙어 있다. 한글 관주의 일반적인 성격을 볼 때에, 이 관주는 ‘태초’에 대한 관주라기보다는 1절 전체에 대한 관주로 보인다. ㄱ과 ㄴ을 가르지 않은 것이 그 증거 가운데 하나이고, 한글판 성경 관주의 일반적인 성격 가운데 하나가 상반절이나 하반절 또는 한 절 전체에 대한 관주가 많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대한 한글 관주의 성격은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 성경의 106판부터 달라진다. 105판은 확인하지 못했고, 104판(1986년 6월) 이전까지는 한글판은 ‘태초에’에 관주가 붙어 있었다. 그랬던 것을 106판부터 ‘창조’로 옮겼다. 국한문판은 ‘창조’에 관주 기호가 붙어 있다. 짐작컨대, 두 판의 관주가 다른 것이 문제로 제기되자 더 적합한 자리로 보이는 ‘창조’ 쪽으로 한글 관주를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태초’와 ‘창조’ 두 자리를 두고 비교할 때에는 ‘창조’ 쪽이 더 적합하다. 위의 관주를 검토해 보면 각 절에 ‘짓다’나 ‘창조하다’가 공히 들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구역으로부터 개역까지, 창세기 1장 1절의 관주 ‘ㄱ’이 절 전체를 아우르는 관주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용상 한 절 전체에 대한 관주로 본다면 ‘태초에’에 관주 기호를 붙인 「개역한글판」(104판 이전)과 「구역」이 합당하다. 그러나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고 선택의 문제로 보인다.

다음에 계속해서 검토가 되겠지만, 「관주개역한글판」과 「관주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의 관주 기호가 붙는 자리는 다르다. 1962년 초판의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이 나오고 나서, 1964년에 나온 관주가 있는 국한문판을 만들 때,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였다.¹¹⁾

11) 개역한글판을 만드는 일을 맡아서 하였던 김태룡 장로는 국한문 성경의 관주 작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고, (김태룡 장로는 1960년에 대한성서공회 일을 떠남) 대한성서공회에 오래 재직한 김호용 총무와 정말용 부총무의 옛 기억으로는 당시 대한성서공회에서 일을 하던 강석모 님이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이 작업에 대한 기록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다. (혹 당시의 교계 신문이나 잡지들에 이러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3.2. 창세기 1장 9절 관주 ㅅ

[9]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9]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	---

관주 : 욥38:[8]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9]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11]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찌니라 하였었노라

국한문 성경(왼쪽)에서는 단순히 ‘물’에 대한 관주로 처리하였고, 한글판 성경(오른쪽)에서는 ‘천하의 물’ 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에 대한 관주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속성상 ‘천하’에 대한 관주로 일단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중시하여, 64년 국한문성경에서는 ‘물’에 대한 관주로 한정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한문 성경의 판단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모든 관주가 한 낱말에 대하여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BHS 처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처럼 관련된 구절의 처음과 끝에 관주 기호를 붙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의 관주에 대하여 일일이 다 검토하고, 그 관주가 한 낱말에 대한 관련 구절인지, 두세 어절에 대한 관련구절인지, 상반절 또는 하반절이나 한 절 전체와 관련된 구절인지를 검토하고, 판단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그 구분이 칼로 썰 듯 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3.3. 창세기 1장 16절 ㄱ

[16]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6]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	--

선한문 : 하늘이 二巨光을 造호샤 其中에 巨者는 晝를 主管호게 호고 小者는 夜를 主管호게 호며

신4:19 [19]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시136:7-9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8]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선한문 26년 성경은 ‘二巨光’이라는 한 낱말로 되어 있는 곳에 관주가 있고, 한글판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에 대한 관주로 보이고, 국한문 성경을 이를 특화시켜 ‘광명체’에 대한 관주로 한정시켜 고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은 혹 ‘두’나 ‘두 큰’에 대한 관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관주를 이렇게 핵심 한 낱말로 특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범례에서, 관주의 성격을 한두 줄로 설명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4. 창세기 1장 21절 표

[21] 하나님이 ^ㅍ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 ^ㅍ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	--

시104:25-26 [25]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3)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26]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4) 악어가 그 속에서 노니이다

한글판 성경은 ‘하나님이’로부터 ‘창조하시니’까지 상반절 전체에 대한 관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국한문 성경은 관주를 ‘큰 바다 짐승들’로 특화시켰다. 내용상 ‘하나님’에 대한 관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이 상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 창조하시니” 전체와 상응하는 문맥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ㅍ하나님이 …… 창조하시니^ㅍ”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약간 오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원래 개역한글판대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관주 표시가 될 것 같다.

3.5. 창세기 1장 26절 ㄱ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1)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1)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1)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

창9:2 [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어있음이라

시8:6-8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1)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약3:7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와 같이 한 낱말이 아니라 상반절 또는 하반절 전체에 대한 관주의 경우는 그 시작 부분에 관주를 넣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된다. 국한문 판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것’에 관주를 붙여서 전체를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특히 이 곳의 ‘모든’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의 ‘모든’이어서 앞의 ‘새’ 등을 포용할 수 없다. 원래 한글판 자리에 있던 것을 수정한 것이나, 이것은 국한문판이 잘못 고친 것이다.

3.6. 창세기 1장 31절 ㄲ

[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ㄲ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1] ㄲ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	--

전7:29 [29]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피를 낸 것이니라

딤후4:4 [4]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상반절에 대한 관주로, 한글판처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국한문판은 이를 ‘심히 좋았더라’로 특화시켰는데, 딤후4:4나 전 7:29 모두가 ‘심히 좋다’는 것으로만 한정되는 내용이 아니다. 국한문판에는 ‘전7:29’ 관주가 누락되어 있다. 「문리관주」에도 이 부분이 있다. 「국한문판」의 교정 오류로 보인다.

3.7. 창세기 2장 4절 H

[4]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H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4] 여호와 하나님이 ^H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	---

창1:1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판, ‘창조’만의 관주라기보다는 ‘천지 창조’에 대한 관주로 보는 것이 옳겠다. 이곳도 국한문판의 일반적인 개정과 같이 개정이 한 어절의 관주로 특화시키는 개정이다. 한 낱말에 대한 관주인 것과 상반절 또는 하반절 등 한 절에 대한 관주인 것을 서로 다른 기호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3.8. 창세기 2장 5절 L

[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L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L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	--

창1:10,11 [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

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초목’에 대한 관주로만 보기보다는 하반절 전체에 대한 관주로 보인다. 혹 ‘들’에 대한 관주로 생각할까보아 국한문판과 같이 고쳤는가? 한 낱말에 대한 관주와, 절 전체에 대한 관주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 제기된다.

3.9. 창세기 2장 7절 ㄷ

[7]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ㄷ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7]여호와 하나님은 ㄷ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	---

창3:19 [19]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3 [23]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18:27 [27] 오십 의인 중에 오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 오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시103:14 [14]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전12:7 [7]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고전15:47 [47]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관주의 내용이 ‘흙’에 대한 것이므로, 개역한글판대로 ‘흙으로’에 기호를 붙여야 한다.

관주 ㄷ

인, 고전15:45 [45]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는 하반절 문장에 대한 관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한문판이 좀더 구체화시키기는 했지만, 한글판 성경을 따르는 것
이 적합하다.

3.10. 창세기 2장 8절 ㅅ

[8]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 에 ㅅ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8]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의 ㅅ에 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	--

15 [15]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
리며 지키게 하시고

13:10 [10]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
이 넘쳐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
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51:3 [3]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
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
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겔28:13 [13]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
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
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
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31:8 [8]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을2:3 [3]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
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
도다

계2:7 [7]그들이 용사 같이 달리며 무사 같이 성을 더위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향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한글판과 같이 하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에 대한 관주로 볼 수도 있다. 사51:3 ‘여호와와 동산’이 있어서, 국한문판과 같이 ‘동산’에 대한 관주로 볼 수도 있다. 26년판에는 ‘동산’에 관주가 붙어 있다. 구역에서 “^에덴 동편에 혼 동산을 만드샤”와 같이 되었다.

3.11. 창세기 4장 15절 표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 을 표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 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 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표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표가 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 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	---

시79:12 [12]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훼방한 그 훼방을 저희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한글판은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라는 문장을 배려한 관주로 보인다. 시
79:12를 보건대 ‘칠 배’에 관주 부호를 붙인 국한문판의 고침도 타당성이 있다.

관주 ㅎ

비, 겔9:4, 6 [4]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
고

[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찌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1)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계14:9, 11 [9]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
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하
라

‘표’에만 관주 표시를 한 국한문의 표지가 더 합당하게 보인다.

3.12. 창세기 4장 24절 ㄷ

[24]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ㄷ칠 배 일쩜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5]ㄷ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ㄷ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ㄷ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ㄷ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24]ㄷ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 일쩜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5]ㄷ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ㄷ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ㄷ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ㄷ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	--

ㄷ창4:15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ㄷ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ㄷ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국한문판의 표지가 적합하다. 한글판에서는 문장 단위로 관주를 붙인 것이고, (ㄷ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쩜대) 국한문판에서는 이를 ‘칠 배’로 국한시켰다. 일반적으로 더 구체적인 관주가 쉽고, 문장 단위의 관주는 틀렸다 할 수는 없으나, 범위가 넓어서 생각을 좀 더 해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ㄷ대상1:1 [1]아담, 셋, 에노스,

눅3:38 [38]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26절의 ‘셋’에 있어도 문제가 없는 관주를 25 절의 ‘셋’으로 옮긴 까닭은 모르겠다. ‘셋’이 같기 때문에 생긴 교정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관주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문제는 없는 곳이다.

ㄷ시116:17 [17]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슥3:9 [9] 그 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속13:9 [9]내가 그 삼분지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호와와 이름(한글판)’ 보다는 ‘이름’이 더 구체적이지만, 꼭 이렇게 고칠까닭은 없을 듯하다. 스가랴에서는 ‘내 이름’이라고만 나와서 그랬을까?

3.13. 창세기 5장 1절 ⊥

[1]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 형상대로 지으시되	[1]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	--

보, 창1:26,27 [26]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용어 쪽으로 관주 체제를 손질을 하였다. 이 곳도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 26절에는 ‘우리의 모양’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구절은 없다. 그러므로 관주를 ‘모양’으로만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한문성경의 관주에만 엡4:24와 골30이 나오는데, 이는 한글판과 26년판에는 없던 관주이다.

엡4:24 [24]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3:10 [10]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를 보면 ‘골30’은 ‘골3:10’의 오기로 보인다. 엡4:24는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없는 관주이다. 잘못 들어간 곳으로 보인다. 개정판 때에는 빼야 할 것이다.

4. ‘개역개정판’ 관주를 위한 단기적 작업

4.1. 개역 관주의 오류 교정

현재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되고 있는 관주 성경은 그 근간이 「貫珠聖經全書改譯簡易國漢文 한글판」(H073MS)의 관주와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H073)의 관주이다. 이 한글 관주의 뿌리는 1926년의 「선한문관주성경전서」(또는 구역)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주의 주가 완전히 26년판의 관주와 일치하였다. 이것이 구역의 관주로, 개역의 관주로 이어진다. 어쩌다 달리 된 곳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구역의 교정 오류이거나, 개역한글판(1961) 관주의 교정 오류였다. 앞에서 논의한 12건의 오류가 모두 1926년판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던 것이 구역에서와 개역한글판에서 교정이 잘못된 곳이다. 이 가운데 2건은 구역에서도 잘못되어 있었고, 26년판 관주는 12건이 모두 바로 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주의 오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차로 26년판 「선한문」 관주와 현 「한글판」 관주 성경을 대조해 보아야 추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대조 작업을 통해서 차이가 발견이 되면, 그 자료들은 따로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쪽이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전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수도 있다.)

내용의 검토는, 차이를 보이는 곳 가운데, 26년의 오류를 혹 개선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교정 오류로서 26년판의 내용대로 고쳐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미 발견된 곳 외에는 거의 오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류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정도의 교정 작업은 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작업이다.

4.2. 관주 위치의 오류 교정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역에서 개역한글판으로 올 때에 번역이 바뀐 곳의 관주가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26년판 또는 구역의 관주를 가지고 현재의 관주와 관주 기호의 위치를 비교하여, 한 절 안에서 어순이 바뀐 개정이 있는지, 그 경우에 관주에 영향을 미치는 곳인지를 찾아야 한다. 앞에서 검토한 대로 이러한 곳은 앞뒤 관주 순서를 내용에 맞게 재조정하여야 한다. 개역의 관주 작업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오류는 개역한글판의 관주를 개역개정판으로 옮길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이다.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4.3. 「관주성경전서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의 관주와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의 관주

이 둘 사이에는 본문에 관주가 붙는 자리에 큰 차이가 있다. 검토해 본 결과, 26년의 관주를 가지고 구역의 관주와 현재의 「관주개역한글판」을 만들었으며, 「관주개역한글판」을 가지고 다시 검토 수정하여 현재의 「관주성경전서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H073MS)의 관주를 만들었다.

「국한문판」에서 달라진 곳은 관주의 내용이 아니라, 본문에 관주기호가 붙는 자리이다.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에 이전의 「구역」으로부터 「관주개역한글판」은 문장 단위로 관주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문장 단위와 낱말 단위의 관주가 섞여 있음으로써, 문장 단위의 관주는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개역간이국한문한글판」의 관주에서는 주로 문장 또는 상반절이나 하반절 단위의 관주를 그 속의 핵심 어절 단위로, 관주 기호를 붙이는 자리를 바꾸었다. 그러나 그 수정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이제 관주 체제를 검토한다면, 두 종류의 세로쓰기 관주를 대조하여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을 검토하되, 나중에 개정된 관주인 「관주성경전서간이국한문한글판」의 관주를 기준으로 하여, 두 관주 사이에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실제로 국한문관주 성경보다는 한글판관주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 온 한국 교회의 현실을 중시해서, (구역으로부터 내려온 그대로의) 개역한글판 관주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국한문판에서 변경된 곳은 본격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관주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5. 장기적인 관주 개정 작업

개역한글판을 개정하듯 관주의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 이 개정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오기를 찾아내는 교정과, 국한문판의 작업을 보완하는 검토뿐만 아니라, 「개역개정판」에 올리게 될 관주를 이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일이다. 이 작업은 단순히 개역한글판의 관주를 개역개정판의 본문에 옮기는 정도의 작업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써 오던 관주 자체를 전반적으로 연구하여 재검토하는 일이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될 때부터 몇 번 개정되어 「개역개정판」이 되기까지

수십 년 동안 영어권이나 독일어권 등에서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관주 성경이 나왔다. (해설관주성경의 관주는 독일어권에서 나온 또다른 관주의 한 예이다.) 개역의 관주는 1926년에 완성된 것으로, 그동안 거의 한 번도 본격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 64년판 관주성경은 관주를 붙이는 자리에 대한 보정의 성격으로서, 관주 자체의 내용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 이제 새로운 작업은 개역개정판의 관주를 위한 검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주 체계를 세울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이제까지 사용하여 온 관주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장기적 작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성서학자들이 검토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본격적인 관주 작업을 뜻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관주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 관주의 원 자료와 성격 등을 밝힌다. 현재의 관주에서 출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곳을 첨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곳을 삭제하여, 전면적으로 관주에 대하여 연구와 검토와 개정 작업을 한다.

6. 맺음말

이 글은 한글 관주의 바탕인 「영어 개역 관주 성경」(옥스퍼드대학교와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을 직접 비교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영어 개역 관주 성경」을 구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관주 성경들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역본들마다 관주가 조금씩 달랐다. 관점과 필요에 따라서 다른 관주 체계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관주는 어떠한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역의 관주에 약간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것은 성과이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주 개역개정판」에서 「개역한글판」의 관주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류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개역성경의 관주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관주의 내용과 성격을 밝히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